

2024
11월25일

밍글라바, 태장장로교회에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은 붉은 단풍이 짙어가는 깊은 가을일까요?
이 곳 미얀마 산주의 아웅반은 노랗색 유채꽃이
만발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웅반 교회에서는 화려하진 않지만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즐겁게 율동을 배우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담길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남장현 위임목사님과 태장장로교회 성도님들께 평안과 감사로 인사드립니다.
먼 미얀마 산주의 아웅반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
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1-32) 아멘. 불교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늘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
만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연습니다. 사랑하는 태장장로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그 사랑이 늘 역사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웅반에서 강범수, 이해진 단열, 주담 드림-